

김숨 '뿌리 이야기'

제39회 이상문학상 대상



김숨의 '뿌리 이야기'가 문학사상이 주관하는 제39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인간을 나무에 비유해 산업화와 개발로 인한 현대사회의 황폐함과 현대인의 뿌리 뽑힘, 그리고 다른 곳으로의 이주가 초래하는 고통을 문학적으로 승화한 수작"이라고 7일 밝혔다.

우수작은 손흥규의 '배회', 윤성희의 '휴가', 이장욱의 '크리스마스캐럴', 이평재의 '흙의 멜로디', 전성태의 '소풍', 조경란의 '기도에 가까운', 한유주의 '일곱 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 등 일곱 작품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며 대상 상금은 3500만 원, 우수상 상금은 300만 원이다. 수상 작품집은 오는 20일 발간된다. /연합뉴스

51명의 희망 메시지

'희망이 희망에게' 출간

광주MBC가 선정한 희망인물 51명의 사연을 담은 '희망이 희망에게'(도서출판 산처럼)가 출간됐다.

이 책에는 광주MBC가 지난해 인터넷으로 후보 추천을 받아 추진한 '희망인물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사람들의 삶과 희망 메시지가 담겼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인시장 '해뜨는식당' 김선자 대표, 고난을 딛고 13개 국가에 법인과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 한센병 환자를 위한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국립소록도 병원 오동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 삶을 일군 인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글은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인 소설가 김현주, 이원화, 나정희씨 등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 작가 10명이 썼으며, 사진은 신세계미술상 등을 수상한 김영태 작가가 찍었다. 표지디자인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포스터를 디자인한 박근준 작가가 맡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차 폴리 작품 중 하나로 장동 사거리에 조성된 후안 헤레로스의 '소통의 오두막'.

'3차 광주 폴리' 장소 시민이 결정

광주비엔날레재단, 2차 평가단 보고서

주제·작가 선정 등 소통 시스템 필요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예산 확보도

3월부터 25억 들여 5개소 내외 추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3차 광주 폴리(Folly)' 프로젝트는 장소 선정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특히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폴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장소 선정 및 조형물 조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7일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정동채·이하 재단)은 "2차 광주 폴리 평가단(단장 전득염·이하 평가단)의 평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오는 3월부터 3차 폴리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3차 폴리는 모두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5개소 내외에 설치된다. 재단은 상반기 내에 장소 및 감독, 작가 선정 등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 완공한다는 목표다. 앞서 1차 폴리(2011년)는 11개소, 2차 폴리(2013년)는 8개소에 설치되는 등 모두 19개소에 작품이 설치됐다.

재단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3달간 1, 2차 폴리를 평가하고 3차 폴리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 폴리 평가

단'을 운영했다. 평가단은 8차례에 걸쳐 현장 답사와 자체 토론,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그동안 폴리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향후 보완점 등에 대해 평가해 이달 초 '2차 광주 폴리 평가서'를 내놨다.

재단은 "평가단 등에서 폴리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주제, 장소, 작가 선정 방식 등 각 단계에 있어 지역 사회와 다양한 형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2차 폴리는 조형성과 사용성을 함께 고려하고 사업주체의 일원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및 전문가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동안 폴리는 총감독과 큐레이터가 선정되고 장소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폴리시범회의 등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지역 사회의 의견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문화 예술 단체들과 청

년작가들이 폴리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폴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매년 투자되는 2억2500만원의 폴리 유지 관리 및 활성화 예산으로는 근본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 중 폴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책정된 폴리 유지 관리 및 활성화 예산은 2500만 원 증액된 2억5000만 원이다.

이 밖에도 객관적으로 폴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3차 폴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광주시 공공계획 사업 및 기획, 광주문화재단 등 8대 문화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의 문화 자원, 국토교통부 사업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조직, 예산 등을 포함한 체계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폴리가 낙후된 지역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시 재생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예술을 통한 광주 도시 재생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광주 폴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상반기 이 책을 주목하라

신영복 '마지막 강의'

피케티 대표작 3권

김상봉 '철학의 경계에서'

유홍준 '문화유산 답사기'

진중권 '예술가의 비밀'



신영복

진중권

'갑오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의 신작과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의 대표작들이 올해 상반기 독자들을 찾는다. 신영복씨의 '마지막 강의'(가제)가 돌베개를 통해 상반기 출간될 예정이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명예교수가 유럽의 살롱과 클럽 문화사를 개관한 대작 '담론의 탄생'과 자신의 독서편력을 다룬 에세이 '나의 유럽, 나의 편력'도 이르면 내달 독자와 만나

는다. 한길사에서 함석헌 연구 전문가인 김영호 인하대 교수의 '함석헌 사상 깊이 읽기'를 내달 초 출간한다. 이광주 인제대 명예교수가 유럽의 살롱과 클럽 문화사를 개관한 대작 '담론의 탄생'과 자신의 독서편력을 다룬 에세이 '나의 유럽, 나의 편력'도 이르면 내달 독자와 만나

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신작 '예술가의 비밀'이 3월 창비에서 출간된다.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의 신작 '대담집'(창비) 또한 기대를 모은다.

2월 중순 나올 예정으로 현재 예약 판매 중인 '주거자의 두번째 이야기'(가제·푸른숲)도 '입담'을 기대하는 독자

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번역서로는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의 다른 대표저작인 '세금혁명'과 '신자본론' 등 3권이 다음달부터 출간된다. 일본의 대표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화와 국, 가능성의 중심'(가제)은 3월 일본보다 먼저 국내에서 최초 출간한다.

'실적의 심리학' 후속편도 21세기북스를 통해 출간되며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가제)의 저자인 사회학자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의 '사랑, 결혼, 관계에 대한 30가지 지혜'는 결혼 전문가들을 심층 면접한 결혼지침서 후속편이다.

이밖에도 김상봉 전남대 교수가 '철학의 경계에서' 등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법륜스님의 에세이(이봄)는 4~5월 독자들을 찾는다. 한병철 베를린예술대 교수의 '심리정치'(문학고지성사)도 내달 출간예정이며, 강상중 세이카쿠인대 학장의 '마음이 힘'(사계절)은 3~4월에 볼 수 있다. /연합뉴스

2030들의 꿈·사랑

상무 기분좋은 극장 오늘부터 '옥탑방 고양이'

'옥탑방 고양이'는 지난 2001년 김유리 작가가 인터넷에 연재했던 소설이다. 온라인 상에서 인기를 누린 후 책으로 발간돼 인기를 모았고 지난 2003년 MBC 드라마로 제작돼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에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탄탄한 스토리와 공감가는 캐릭터로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그해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연극 부문도 수상했다.

2030 세대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 코믹 로맨스 연극 '옥탑방 고양이'가 8일부터 2월8일까지 광주 상무지구 기분좋은 극장에서 공연된다.



주인공은 작가의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정은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도남 경민. 김주인의 이중 계약으로 옥탑방에 동시에 이사를 온 두 사람은 방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게다가 옥탑방에는 말하는 고양이까지 살고 있다는데..

티켓 가격 3만원. 문의 062-374-3304. /김미은기자 mekim@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dtjs12@hanmail.net